

ISSUE BRIEFING

2020. 05. 15  
Vol. 221

# 2020

# ISSUE BRIEFING

연구진

이지훈\_산업경제연구부/대도약정책지원단 부연구위원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  
전북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하자!

## CONTENTS

- 1. 이제는 고령친화산업 ..... 3
- 2. 전북은 고령친화산업 최적지 ..... 4
- 3. 전북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특화·육성 방향 ..... 7

## 요약

- 우리나라는 2025년경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고령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에 따르면, 소비여력을 갖춘 고령 세대 증가로 식품, 화장품, 여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이 연평균 13%씩의 고성장이 기대됨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시장전망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시니어 시프트를 전북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전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남원 노암 화장품 집적화단지, 순창 설랜드 관광휴양촌 등 시니어 시프트를 위한 생산·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혁신 기반도 갖춘
- 전북은 확보된 관련자원을 연계하여 향후 시장전망이 긍정적인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 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초고령화시대 전북 산업의 전환 >



- 도내 부족자원은 충북 오송바이오단지, 충남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 관련 자원을 갖춘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초광역 프로젝트’로도 추진이 가능함
- 전북지역 내 령친화산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연구센터, 공공 고령친화 지원센터,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지원센터 등 혁신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의 창업 지원체계 구축, 공공주도 시장창출을 위해 도심권 고령친화형 도시재생 등의 사업 추진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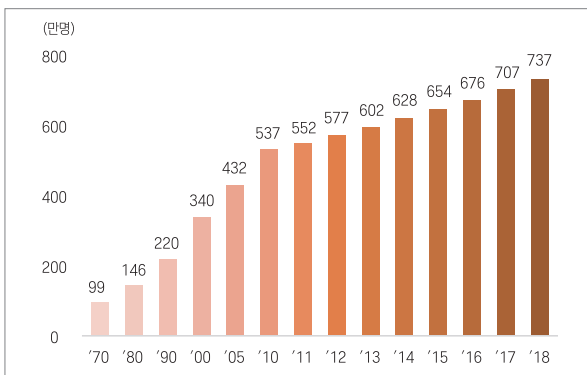
## I. 이제는 고령친화산업

### 1. '시니어 시프트' 시대의 도래

- 기대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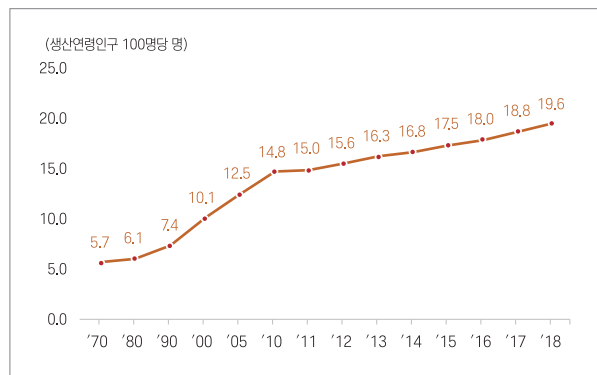
- 정부발표<sup>1)</sup>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사회(고령인구 7% 이상)와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를 지나, 2025년경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진입될 전망

〈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



출처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2019, 관계부처 합동)

〈 노년부양비 추이 〉



- 초고령화 사회는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령 세대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시니어 시프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란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AEON)사가 자사 고령중심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일컫는 용어로, 고령사회 관련 연구, 서적에서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됨(출처 : 최상태·한주형, 2018)

- 시니어 시프트는 한 기업의 마케팅 용어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국가, 산업, 기업과 지자체에 있어 노동과 소비의 핵심주체가 고령자로 전환됨을 의미
-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시니어 시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2. 차세대 블루오션,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됨

1)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2019, 관계부처 합동)

- 세부적으로는 고령친화요양, 고령친화약품,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의료기기, 고령친화주거, 고령친화금융, 고령친화여가 등으로 구분함

- 고령친화시장은 연평균 13% 이상 고도로 성장하여 2020년 약 73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친화여가, 고령친화식품이 전체 시장의 약 5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고령친화 시장 전망 〉

(단위:억 원, %)

	2012	2018	2020	CAGR (2012~2020)
요양	29,349	73,778	100,316	16.61
약품	37,791	77,190	97,937	12.6
의료기기	12,438	25,550	32,479	12.8
화장품	6,945	16,316	21,690	15.3
식품	64,016	136,880	176,343	13.5
여가	93,034	202,441	262,331	13.8
주거	13,546	14,257	14,301	0.68
용품	16,869	20,957	22,907	4.0
전체	237,809	567,369	728,305	13.0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산업연구원(2019, 문혜선, P34)

-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는 식품, 화장품, 패션용품, 의약품 순이며, 고령친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지원서비스, 여가서비스, 주거서비스, 교통서비스 순으로 나타남(문혜선, 2019)
-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선점하고자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중 발표 할 예정(관계부처 합동, 2019)인 가운데, 전라북도도 향후 시장 전망과 소비자 수요에 맞춰서 전라북도의 산업을 전환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I. 전북은 고령친화산업 최적지

### 1. 전북, 시니어 시프트의 최전선

-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2020년 고령인구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30년경 고령인구가 30%에 근접하고, 2045년에는 40% 이상이 고령자로 구성될 전망

#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 전북 맞춤 고령친화산업 육성하자!

〈 전라북도 인구 추이 〉

년도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2000	1,927	213	11.1
2010	1,796	284	15.8
2020	1,824	372	20.4
2030	1,810	534	29.5
2040	1,778	690	38.8
2045	1,739	730	41.9

출처 : 2018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2018, 호남지방통계청)

- 전북 65세 거주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1.9%로, 전국 39.9% 보다 높아 고령친화 시장 형성에는 유리(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2018)
  - 전북 고령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높아,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음

## 2. 시니어 시프트의 생산·서비스 거점 확보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의 생산과 가공 활동의 거점 확보
-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품질안전, 식품포장,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식품벤처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고령친화식품기업의 비즈니스 지원 활동 용이
  - 기능성식품제형센터는 섭취 목적과 용도에 따라 식품 형태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의 저작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고령친화식품의 제형 지원 가능

### ◎ 남원 노암 화장품 집적화단지

- 남원에 위치한 노암산업단지는 화장품에 특화되어, 관련 기업의 생산과 가공 활동에 있어 전북 거점으로 위상 확보
-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우수화장품 제조시설(CGMP),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 시설, 지식산업센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으로, 고령친화화장품 비즈니스 지원 활동 용이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 남원 노암 화장품 집적화단지 〉

### ◎ 순창 실(SHIL)랜드 관광휴양촌

- 순창에 위치한 실랜드는 건강과 장수의 의미를 담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
- 생활체험관, 아카데미관, 순창건강장수연구소(서울대 운영) 등을 조성하여, 건강장수 휴양 체험시설과 교육프로그램(건강장수식단, 당뇨학교 등)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지원과 여가 서비스 지원 용이

## 3. 시니어 시프트 R&D 자원 우수

### ◎ 한국식품연구원

- 완주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분야 국내 최고 R&D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
  -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부터 기관 고유사업으로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추진 중임
  - 18년 고령친화식품(3D 식품 프린팅 및 고령자용 연하·소화 용이성 제품)에 대한 기술을 삼성웰스토리에 기술이전 함
- 한국식품연구원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산업지원 기능도 갖추

###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남원에 위치한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뿐 아니라, 지리산 자원식물에 대한 화장품소재 발굴 및 제품화 연구를 수행 중
  - 화장품 소재원료 연구개발, 소재원료 라이브러리 구축 등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지리산 자원식물을 화장품소재로 활용하여 고령친화화장품 개발과 기업지원이 가능

#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 전북 맞춤 고령친화산업 육성하자!

- 고령자용 천연기능성 화장품, 노화예방 천연화장품, 간편성 올인원 화장품, 천연향 화장품(노인체취 해결) 등의 개발과 시장화 필요

## ◎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전북글로벌게임센터)

- 전주에 위치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기능성게임 분야에 특화하여 기업지원을 수행 중
  - 기능성게임이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오락적 요소를 접목한 콘텐츠(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능성게임종합포털)”
  - 진흥원은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게임기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 추진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게임 콘텐츠 지원함으로써 고령친화 여가서비스 분야의 산업지원 가능

## III. 전북 맞춤 고령친화산업 특화·육성 방향

### 1. 기본방향

#### ◎ 전북 특화 고령친화산업 선정·육성

- 전북이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이 필요
- 전북의 관련 자원이 확보되면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화장품, 고령친화콘텐츠, 고령친화힐링 등 4대 분야를 특화분야로 제안



〈 초고령화시대 전북 산업의 전환 〉

## ◎ 수도권 고령친화 전문기업 유치

- 2017년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사업체의 약 65%가 서울, 경기도에 집중화 되어 있어, 이들 사업체의 전북 유치가 절대 필요
-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에는 관련 업체 비중이 1.9%에 불과하여 지역 내부 기업만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부족
-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련 업체의 정부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로 세제 등 금융, 연구 개발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북혁신기관의 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창업·유치 등으로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과 기술지원 추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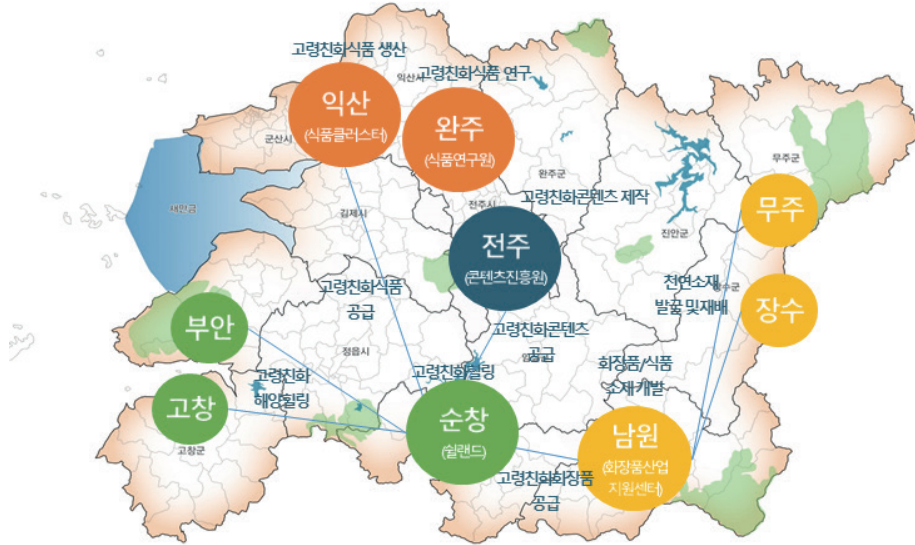
## 2. 고령친화 특화·연계 방향

### ◎ 도내 권역별 특화·연계 강화

- 고령친화식품 특화 : 익산, 완주/전주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연계한 고령친화 품 연구·생산 거점 구축
  - 전주, 익산 등 도시권 시장을 활용한 고령친화 식품의 소비자 테스트 거점 구축
- 고령친화 식품·화장품 소재 특화 :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
  - 남원, 장수, 무주 등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에 필요한 천연소재 발굴·재배 특화
  - 남원의 화장품원료 사업화 자원을 활용하여 화장품 및 식품 소재개발 특화
- 고령친화콘텐츠 특화 : 전주, 익산 등
  - 전주 기능성게임, 익산 홀로그램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 특화·발전
  - 세대융합형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 창작, 창업 지원 등
- 고령친화힐링 특화 : 전주·익산,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 등
  - 전주(전북대), 익산(원광대), 남원(공공의대) 등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고령친화기기 개발 거점 구축
  - 동부권(산악)과 서부권(해양)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여가서비스의 거점으로 조성



#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 전북 맞춤 고령친화산업 육성하자!



〈 초고령화시대 전북 지역별 특화·연계 방향 〉

## ◎ 도외 초광역적 연계협력

- 도내에 부족한 혁신자원, 혁신생태계는 인근 광역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으로 추진
- 충북 오송바이오단지, 충남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친화 바이오융합산업 육성 가능
  - 식품과 화장품 분야 소재개발에 있어, 전북은 지리산·덕유산을 활용한 식물소재, 충남 서천은 해양바이오소재 등으로 특화하여 사업 추진
  - 고령친화힐링 분야는 충북 청주(오송)가 의뢰기기, 전북 남원이 공공의대를 활용한 공공복지기기 등으로 지역간 연계 발전이 가능

## 3. 고령친화산업의 가치사슬 강화 방안



〈전북 고령친화산업 가치사슬 강화 방향〉

## ◎ 고령친화 혁신인프라 강화

### • 고령친화식품연구 실증 인프라 확충

-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고령친화식품 분야를 전복에 특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R&D 거점으로 조성
- 필요 시 고령친화식품연구센터를 별도로 조직화하거나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물을 지역 고령자 대상으로 실증하여 DB를 구축하고, 고령자 수요와 특성, 상품화 전략 등을 지원
-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료기기 R&D),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ICT 융합기구) 등 의료기기 분야와 달리 식품 분야의 고령친화 R&D 및 기업지원 거점조직이 국내에 없어 국가적 식품분야 거점조성의 당위성을 갖춤

### • 공공 고령친화지원센터 운영

- 시니어 시프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민간주도 고령친화산업의 소비자로서 참여가 어렵거나 코로나19로 비대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고령화 계층을 위하여 국가적 거점 지원조직 설립 필요
- 전북의 사회적 경제 조직, 남원의 공공의대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 고령친화 의료기기, 고령친화 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보급·지원 기능 수행

### •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계획거주(Ageing in place) 기능성 콘텐츠 확충

- 전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가사·간병 시 스피커), 기술지원, 네트워크, 수요자 집단을 연계하여 콘텐츠 효용성 평가(리빙랩) 등의 기능 수행
- 전북 치매센터, 시군 단위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 관련 라이프 로그 빅데이터(Lift log bigdata) 구축 등 추진

## ◎ 고령친화 제조·서비스 기반 강화

###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창업 지원 강화

- 전북창조경제센터, 전북시제품제작소 등 도내 창업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에 대한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확대(고령친화 특화 창업보육센터 조성 등)

###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자 참여단 모집

- 고령친화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도시인프라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요자 참여단 모집
-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시민연구멘토단(리빙랩)을 구성하여, 고령친화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함

## ◎ 공공주도형 고령친화 시장 창출

### • 도심권 고령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신설

- 도심권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친화 시장 창출 지원
-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개선, 도심형 실버타운(노령친화콘텐츠 보급) 조성, 노인친화 도서관(노령친화식품 납품 등), 고령친화 콘텐츠 공연장, 고령친화 대중교통 시스템, 고령친화 정보통신망 등

### • 농어촌 고령친화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

- 도심권 고령친화형 도시재생과 같은 농어촌에 특화된 농어촌 무장애 환경개선,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고령친화 기능성 콘텐츠 놀이터(실버 놀이터) 등

#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 전북 맞춤형 고령친화산업 육성하자!

## <참고문헌>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 관계부처 합동, 2019,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3. 문혜선, 2019, 고령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4. 최상태·한주형, 2018, 시니어 시프트, 한국경제신문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고령친화산업 실태 조사 및 산업 분석
6.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능성게임종합포털(<http://www.kocca.kr/seriousgame>)
7. 호남지방통계청, 2018, 2018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



**ISSUE BRIEFING**  
2020. 05. 15 **Vol. 221**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